

호스피스 학회 참관기

홍 영 선
(부회장)

그
□ 년에는 우연히 영국 LONDON 에서 세계적 규모의 Hospice학회 두가지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9월8일 부터 10일 사이에는 International Hospice Institute & College의 연례모임이, 11일부터 13일 사이에는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의 congress가 각각 열렸다. 본 협회에서는 주경수 지도 신부님, 노유자 회장님, 메리 트레이시 수녀님, 김정선 수녀님 그리고 필자까지 5명과 전진상 회관의 배현정 선생이 참석하였다.

IHI & C 는 1996년 미국 미시간주의 Ann Arbor시에서 미국의 Internatinal Hospice Institute를 모태로 창립된 국제학회로 미국의 Dr.Josefina Magno가 Institute의 회장을, 영국의 Dr.Derek Doyle이 College의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약 350여의 개인이나 호스피스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Hospice 개발 도상국이나 미 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의 제2회 연례모임 및 심포지움은 영국 London의 Royal Society of Medicine 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약 15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호스피스 미 발전국가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날에는 그의 해결방법 제시와 IHI & C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영국의 Dame Cicely Saunders와 Dr.Jorn Sternsward, 영국의 유명한 완화의학학자의 Geoffery Hanks, Robert Twycross 등이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다.

필자는 첫날에 The challenges we face라는 제목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한국 호스피스의 역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저녁에 열린 Gala dinner시 한국 강령탈출을 직접 소개하였다. 학회후 열린 이사회에서 필자는 작년에 이어 다시 이사에 피선되었고, 관리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9월 11일 부터 13일 사이에 같은 London의 Barbican center에서 개최된 제5회 EAPC congress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학회로 유럽 각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모여든 호스피스 종사자들까지 약 2천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학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증상의 조절에 대한 심포지움과 일반연재 발표,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최근 경험한 성공적 palliative care 발전경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어, 여러분야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의 호스피스도 이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국제무대에 참여하고 아울러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국제학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